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재발견
'전통에서 찾은 미래'

미래융합포럼

2015.11.6 (금) 10:30-15:00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주관



융합연구정책센터
Convergence Research Policy Center

CONTENTS

모시는 글	01
개요 및 일정	03
내 용	
• (기조강연) 과학기술시대, 한국의 재발견 -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05
• (특별강연) 역사는 어떻게 소설과 영화가 되는가 - 영·정조 시대와 개화기를 중심으로	23
• (특별강연) 빼앗기지 말아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과 콘텐츠	27
• (발제강연) 과학기술과 고유 문화 자산의 만남을 통한 '新블루오션' 창출 방안	45
• (토론) 한국 재발견 - 무엇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가?	59

모시는 글

급변하는 첨단기술의 시대, 글로벌화에 따른 전세계인의 생활양식이 점차 닮아감에 따라, 우리 고유의 자연과 문화자산에 내재된 우수한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미래융합포럼에서는 '전통에서 찾은 미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 고유자산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재조명하여 전통자원 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분들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융합연구정책센터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준비한 본 행사가 찬란한 대한민국 고유의 자원과 문화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및 산업 창출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및 과학기술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미래융합포럼

기술간 융합을 중심으로 소통과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09년부터 정부 R&D사업 성과대전과 병행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기술간 융합을 넘어 인문·문화·예술 등 他분야와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제 및 프로그램을 발굴·기획하여 독립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및 일정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10:30 ~ 15:00
- 장소 : 양재 엘타워 5층 매리골드 홀
-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일정	오전 세션	10:30~10:40	• 개회사 - 융합연구정책센터소장 하성도 • 축 사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박재문
		10:40~11:10	(기조강연) 과학기술시대, 한국의 재발견 -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 박종원 교수 / 영화감독
		11:10~11:30	(특별강연) 역사는 어떻게 소설과 영화가 되는가 - 영·정조 시대와 개화기를 중심으로 - 김택환 소설가
		11:30~11:50	(특별강연) 빼앗기지 말아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과 콘텐츠 - 이승렬 영화 프로듀서
		11:50~12:00	질의응답
	오찬	12:00~13:00	점심식사
	오후 세션	13:00~13:20	(문화공연) 퓨전 국악밴드 '미지(MIJI)' 공연
		13:20~13:50	(발제강연) 과학기술과 고유 문화 자산의 만남을 통한 '新블루오션' 창출 방안 - 최맹식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13:50~14:40	패널토론 - (좌장) 최맹식 원장 (패널) 김두희 대표, 김세용 명장, 김호경 부사장, 이명재 대표, 최옥자 명장
		14:40~14:55	질의응답
		14:55~15:00	폐회사 - 융합연구정책센터소장 하성도

기조강연

과학기술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TABLE OF CONTENTS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한국의 이미지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아이디어, 어떻게?

예술의 원리

한국의 재발견 : 한류

결어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활력을 통해 파져보기

01 | 한국의 이미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



"DYNAMIC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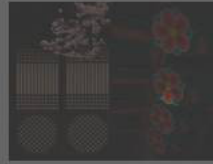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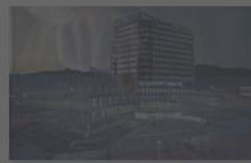
01 한국의 이미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러한 표어들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는?

"DYNAMIC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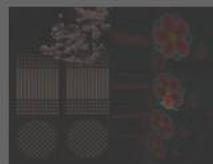
K*ARTS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01 한국의 이미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과학기술과의 접목, 유무형의 콘텐츠 생산

"DYNAMIC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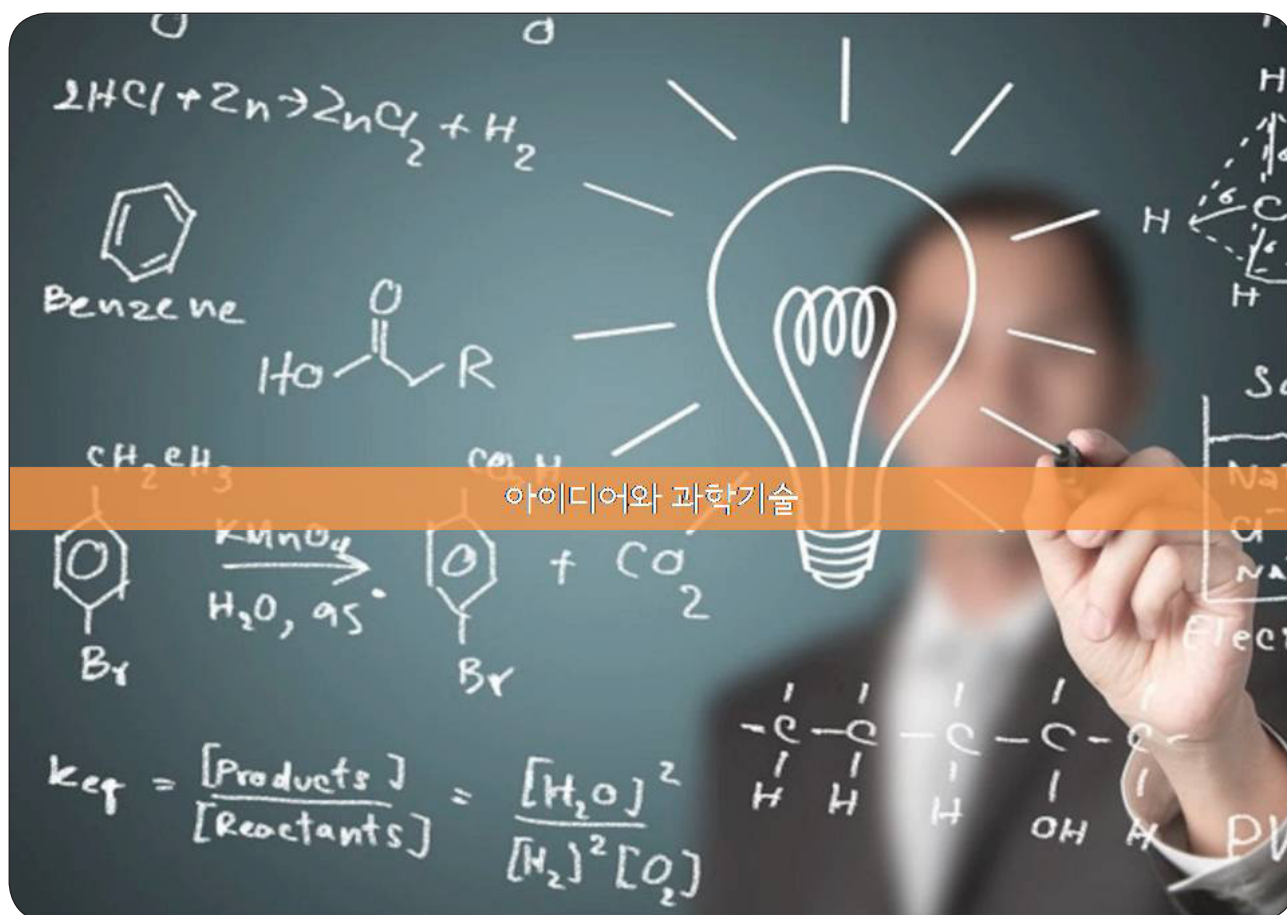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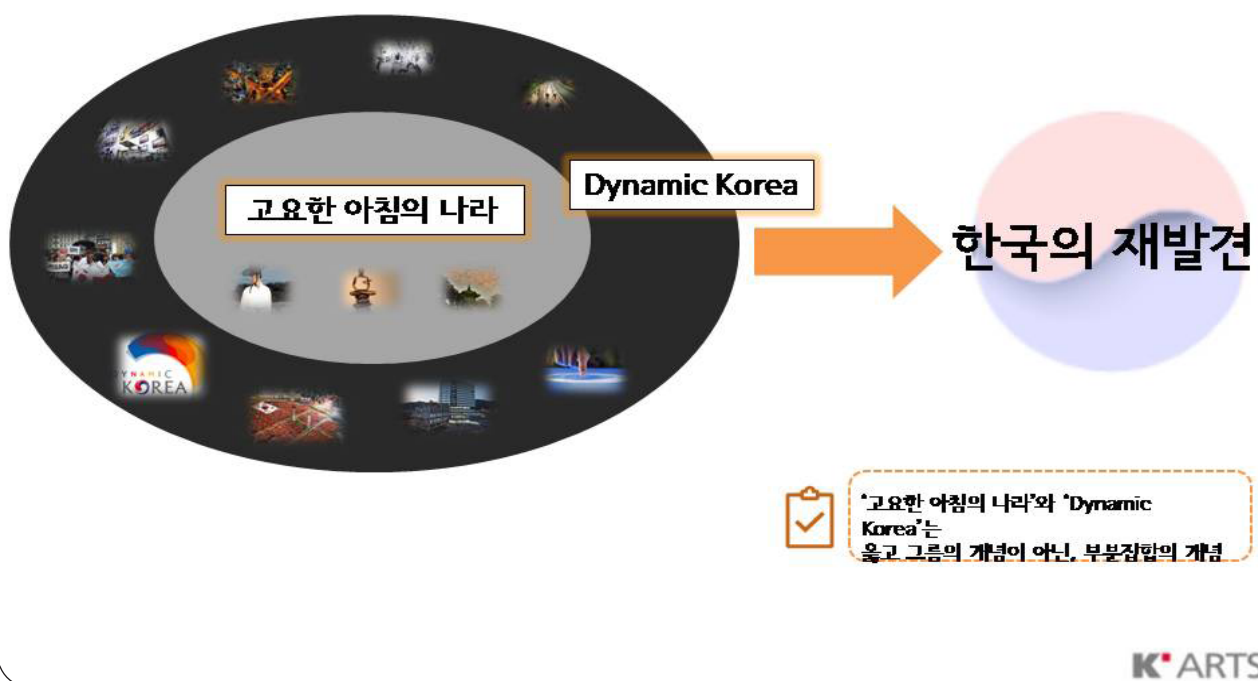


K*ARTS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완리를 통해 따져보기

01 | 한국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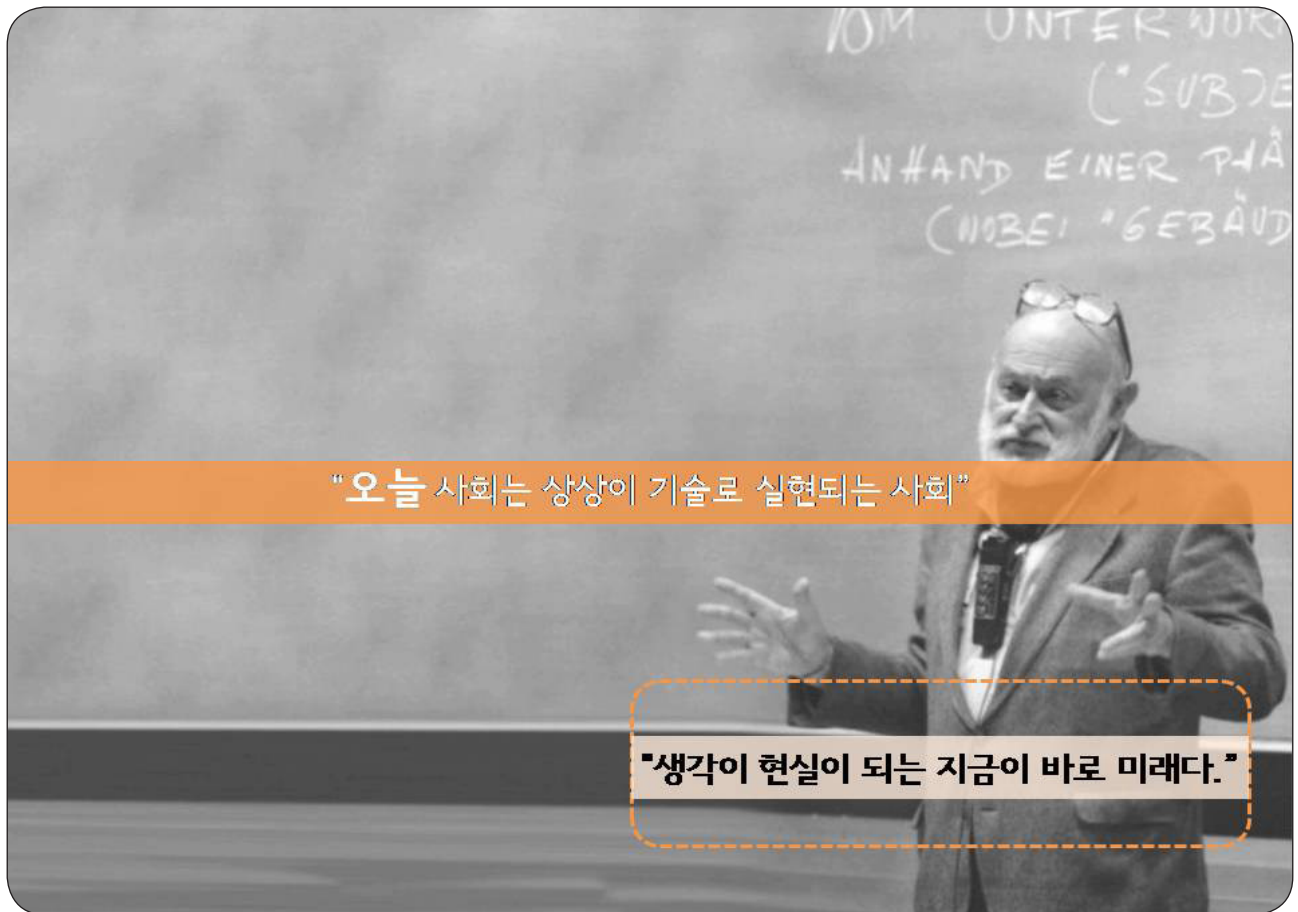
2015년은 <백 투 더 퓨처>에서 주인공이 다녀온 미래의 해
- 영화에 나왔던 여러 미래사회 모습들은 이미 현실화

개발 - 벽걸이 TV, 구글 글래스, 호버보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진행중 - 개 산책시키는 드론, 혈액 교체, 자동으로 맞는 옷과 신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홀로그램은 개발 중



“미래 사회는 상상이 기술로 실현되는 사회”

- 벨렘 플루서 (1920~1991) -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활력을 통해 따져보기

02 |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아이디어 때문이야”



아이디어



테크놀로지



속도



“대박”



NOWHERE = Now + Here



일상 = 지금 존재를 나타내는 최적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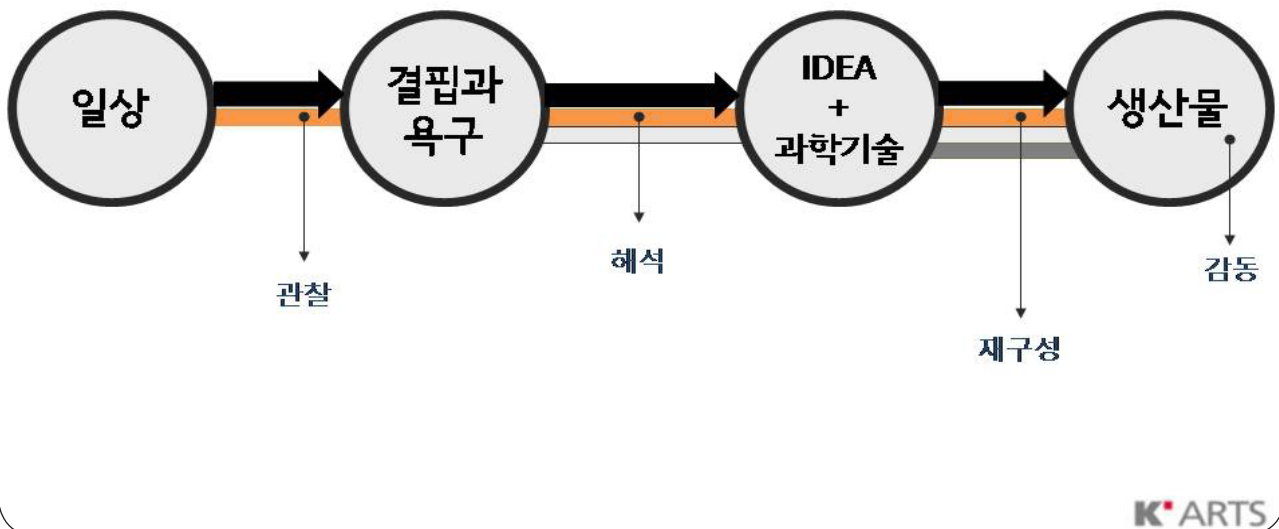
- 동시대 인간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태
- 환경, 자연, 인식 (역사, 종교...)
- 개인의 생애, 문화, 역사

“미래는 현재에, 혁신은 일상에 있다.” - 얀 칩체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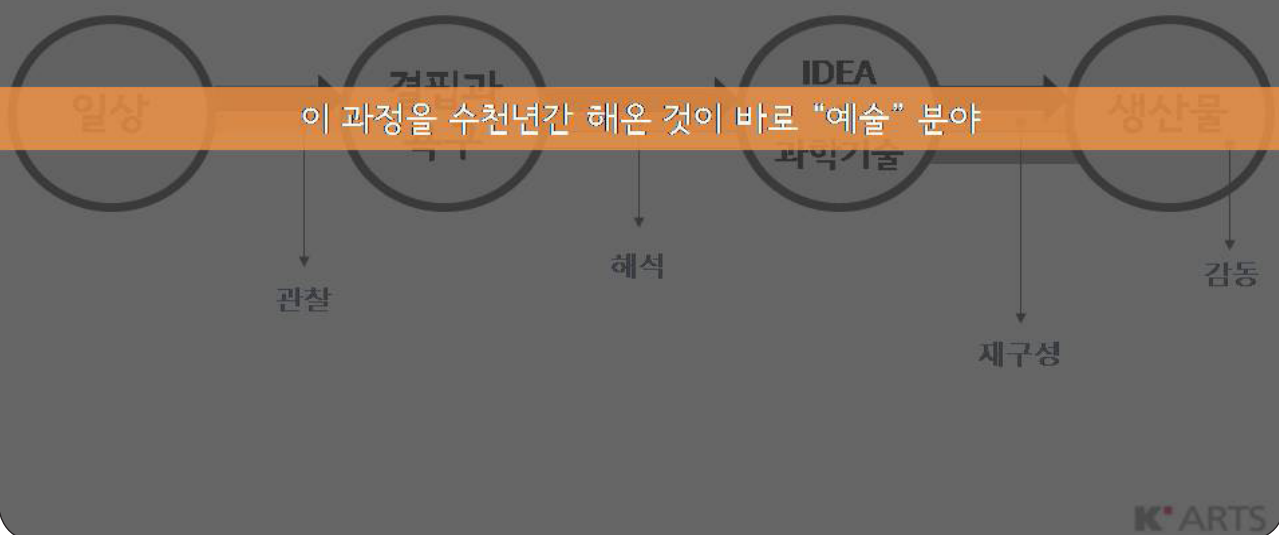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활력을 통해 따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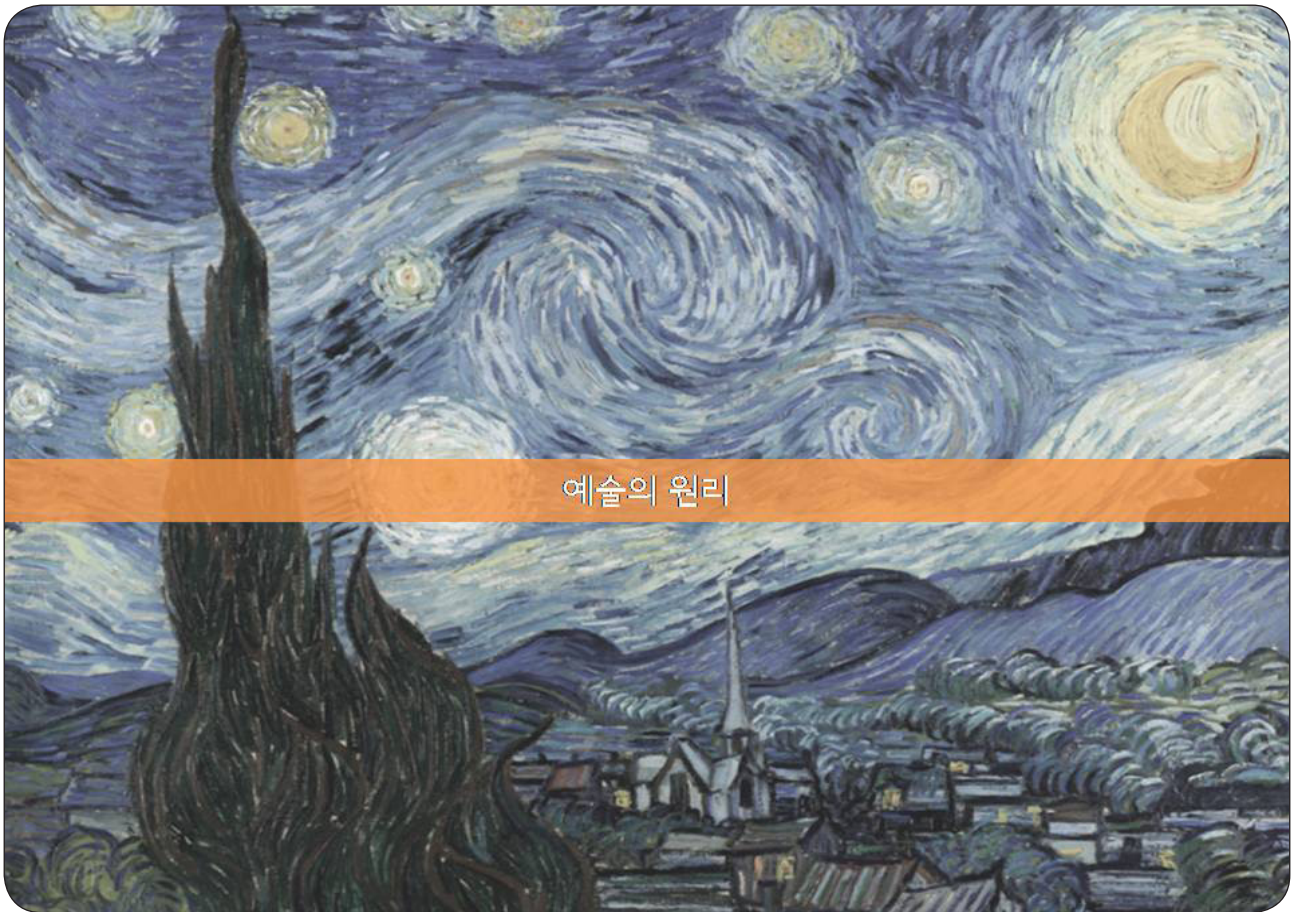
03 | 아이디어, 어떻게?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활력을 통해 따져보기

03 | 아이디어, 어떻게?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04 | 예술의 원리

관찰



클로드 모네, 일출

주장을 배제하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 관점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보이는 사건
- 시시각각 움직이는 세상
- 한국 사회의 가파른 변화 읽기



서부영화 인디언 캐릭터의 변화
존 포드, <늑대와 춤을>



<람보>의 캄보디아인

K ARTS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04 | 예술의 원리

해석



맥락을 이해하고 해체하기

-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이해
- 자신의 시각과 언어를 통해 대상 다시 쓰기
- 시대정신, 대중적 정서에 대한 이해와 예측



<인터스텔라>

우주 공간이 주는 숭고한 느낌을 애절한 부녀관계로 치환

K ARTS



재구성



패러다임 쉬프트

- 외연의 변화 뿐 아니라 인식의 틀 전환
- *스마트 폰 = 부품의 합 이상
- *영화 : 스틸 이미지 -> 모션 이미지

혼종성

- 디지털 시대의 재구성 원리
- 다원성에 입각한 다양한 요소들의 혼종

슈퍼히어로물



잔혹 동화



월드 뮤직, 퓨전 음악



K ARTS



깊은 감동



유저(관객/사용자)에 대한 이해

- 유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 인간이 중심이 되었을 때 감동이 발생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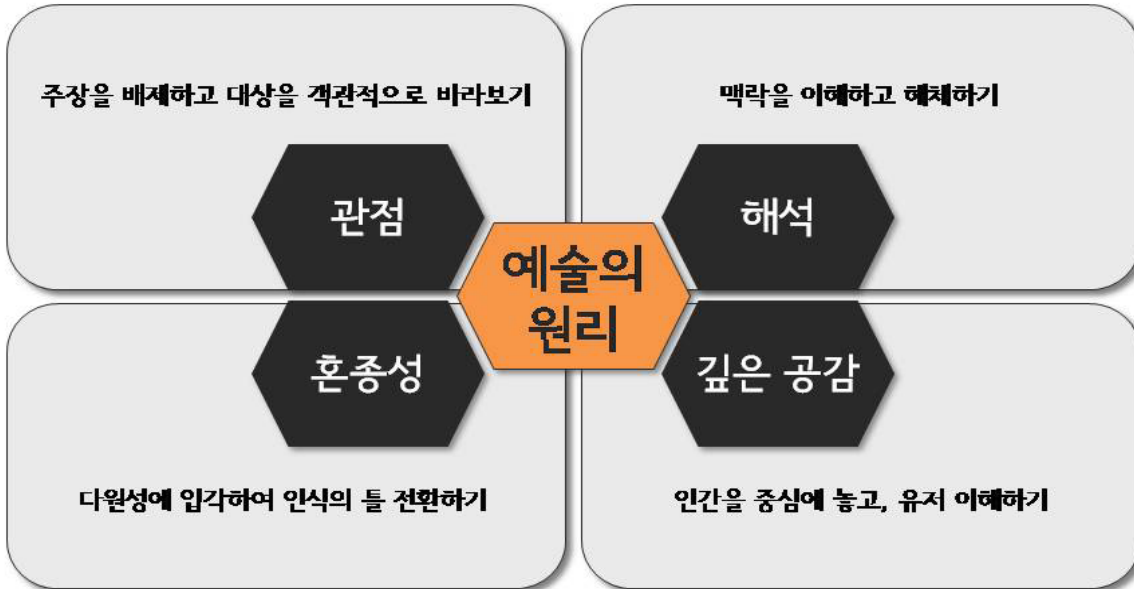
인간 중심의 감동

<명량>



시대정신의 이해

K ARTS



News illustrated

GANGNAM STYLE!!!

The sudden explosion of a South Korean entertainer called Psy, has given the world Gangnam Style. It is setting the music and dance world on fire and has a set sequence. We simplify them for your perusal

★ When to use the steps during the chorus ★

Step 1	Step 2
Oppa is Gangnam style, ahhhh... Gangnam style...	Oh, oh oh oh oh, Oppa is Gangnam style...
Step 1 ahhhh... Gangnam style...	Step 2 Oh, oh oh oh oh, Oppa is Gangnam style... Eeeeee- Sexy Lady...
Step 1 or Step 2 (in the last chorus)	Step 4 Oh, oh oh oh oh, Oppa is Gangnam style... Eeeeee- Sexy Lady oh oh oh oh. Oppa is Gangnam style.
	Step 5 (only at the end)

Step 1 Riding the horse
Dress classy and dance cheesy
Cross your hands (like a horse) and make spread down
Do small jumps with your legs spread like you are riding a horse
Footsteps: R L R R L L L L

Step 2 Lassoing the sexy lady
Lassoing motion with your right arm
Continue with the horse-riding movement
Footsteps: R L R R L L L L

Step 3 Now everybody is looking at me
Hands in pockets or waist and small hip side movements combined with the foot steps
Slight kick with the right leg. Alternate with small jumps with the left leg
Footsteps A: L R L R L R L R
Footsteps B: L R L R L R L R

Step 4 Combine a few 'sexy' moves
Now move your hips to the outside
Cross your hands over your left leg
Spread and flex your legs. Move your body up and down three times
Rotate your right leg three times, maintaining the body position.
Footsteps: L R L R L R L R

Step 5 Finish with a cool pose
Spread your arms and raise your right leg (position A). Now get down quickly on your right leg and flex the left one. Now rotate your right arm and with your hand touch your chin doing a "L" shape with your thumb and index fingers (position B)

Source: Yoo Tube

HUGO A. SANCHEZ/2010/F News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05 한국의 재발견 : 한류

한류의 등장과 호응이유



"Dynamic Korea + Technology"

혼종성의 관찰

전통과 첨단, 가족과 개인, 서구적 가치와 동양적 가치의 충돌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다이나믹한 한국의 이미지가 충실히 담김

재구성

숙련된 대중문화생산자들의 기술력이
이를 외국인들이 동경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냄

→ 이러한 혼종된 문화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 통해 전달

K ARTS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원리를 통해 따져보기

05 한국의 재발견 : 한류

한류가 지속 가능하려면 ?



"대중문화 형식을 넘어 삶의 모델 수출로"

지속성

다양한 포맷과 내용의 콘텐츠의 지속적 생산
한류의 장르 확장
→ 예) 한강의 재발견

삶의 모델 수출

대중문화의 즐거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을 이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

K ARTS



과학기술의 시대, 한국의 재발견
-예술의 완리를 통해 따져보기

06 | 결어

“한국의 발견-재발견은 한국적인 것의 원형 규명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지금, 저기 있는 것’의 혼종을 통해,
인간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제작해 내는 것”

한국의 재발견

과학 기술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상의 가치물
(완성도, 작품성)

인류에게 삶의 가치 제시

K ARTS



박 종 원

- 現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現 영화감독
-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실적

- 1989 「구로아리랑」 감독, 시나리오
- 19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감독, 시나리오
- 1995 「영원한 제국」 감독, 시나리오
- 1999 「송어」 감독, 시나리오
- 2001 「파라다이스 빌라」 감독, 시나리오
- 2007 TV드라마(10부작) 「정조 암살 미스터리 8일」 연출

수상내역

- 19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수작품상, 감독상(대중상영화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청룡영화제) / 대상, 작품상, 감독상(백상예술대상)
- 1995 「영원한 제국」 최우수작품상, 감독상(대중상영화제) / 최우수작품상(영평상)
/ 경쟁부문 본선진출(동경국제영화제)
- 1995 「95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체육부)
- 1999 「송어」 심사위원특별대상(동경국제영화제)
/ 예술실험영화 선정(영화진흥위원회)
- 2007 「정조 암살 미스터리 8일」 좋은방송프로그램상 드라마 부문수상
(한국방송비평회)
- 2012 자랑스러운 한양인상

저서

- 1999 「시나리오에서 스크린까지」

특별강연

역사는 어떻게 소설과 영화가 되는가

영·정조 시대와 개화기를 중심으로





김 탁 환

- 現 작가
- 前 문화계간지 <1/n> 주간
- 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부교수
- 前 한남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 前 문화계간지 <상상> 편집위원

저서

1996년 장편소설 <열두 마리 고래의 사랑이야기>(살림) 이후

2015년 2월 장편소설 <목격자들>(전2권, 민음사)까지 총 50여편의 소설 출간

드라마

2006 KBS 24부작 드라마 <황진이> 원작(<나, 황진이>)

2005 KBS TV 문학관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동명소설 원작

2004-2005년 KBS 104부작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동명소설 원작

2000 KBS 50부작 드라마 <천둥소리> 원작(<허균, 최후의 19일>)

영화 원작/기획

2012년 오션필름 제작, 씨네마서비스 제공, <가비> 원작(<노서아 가비>)

2011년 청년필름/위더스필름 공동제작,
Showbox 제공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원작(<열녀문의 비밀>)

2011년 상상필름 제작, CJ 제공, <오싹한 연애> 기획

특별강연

빼앗기지 말아야 할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과 콘텐츠



[빼앗길 수 없는 우리 고유콘텐츠]

신기전
original soundtrack

이승렬 PD

목 차

1. 신기전의 의의
2. 영화화 과정
3. 빼앗기면 안 되는 우리 고유콘텐츠



synopsis

1448년, 세종 30년

조선의 새로운 화기 개발을 두려워 한 명 황실은 극비리에 화포연구소를 습격하고 연구소 도감 '해산' 은 신기전 개발의 모든 것이 담긴 '총통등록' 과 함께 외동딸 '홍리(한은정)' 를 피신시키고 완성 직전의 '신기전' 과 함께 자폭한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명은 대규모 사신단으로 위장한 무장세력을 급파해 사라진 '총통등록' 과 '홍리' 찾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새로운 화기란 게 뭐요?

명 사신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료 제대로 행길 계획으로 대륙과의 무역에 참여하려던 부보상단 설주(정재영)는 잘못된 정보로 전재산을 잃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의 호위무사인 창강(하준호)이 찾아와 큰 돈을 걸고 비밀로 가득한 여인 홍리를 거둬 줄 것을 부탁한다. 상단을 살리기 위해 거래를 수락한 설주는 그녀가 비밀병기 '신기전' 개발의 핵심 인물임을 알게 되고 톨려 보내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신기전' 의 위력에 매료되고 동료들과 함께 신기전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정녕 이 나라 왕의 선택이란 말이요....

그러나, 포위망을 좁혀온 명나라 무사들의 급습으로 '총통등록' 을 빼앗기고 신기전 개발은 마궁에 빠진다. 한편, 조선이 굴복 의지를 보이지 않자 명은 10만 대군을 압록강변까지 진격시키고 조정을 압박하자 세종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결국 신기전 개발의 중지를 명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설주는 어명을 거역한 채 신기전의 최종 완성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데...

역사 속에서의 “신기전”

1448년
세계 최초 다연발 로켓화포
신기전

세종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은
한글이 아니었다!!

조선 비밀병기 프로젝트

신기전 神機箭

조선과 청이 군신_{君臣}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삼배구고두례_{三拜九叩頭禮}

우리 기술 하나로 자주국방을 모색한

당시의 중국 화포 1) 신화비아



명나라 때 화전을 개량하여 만든 신화비아(神火飛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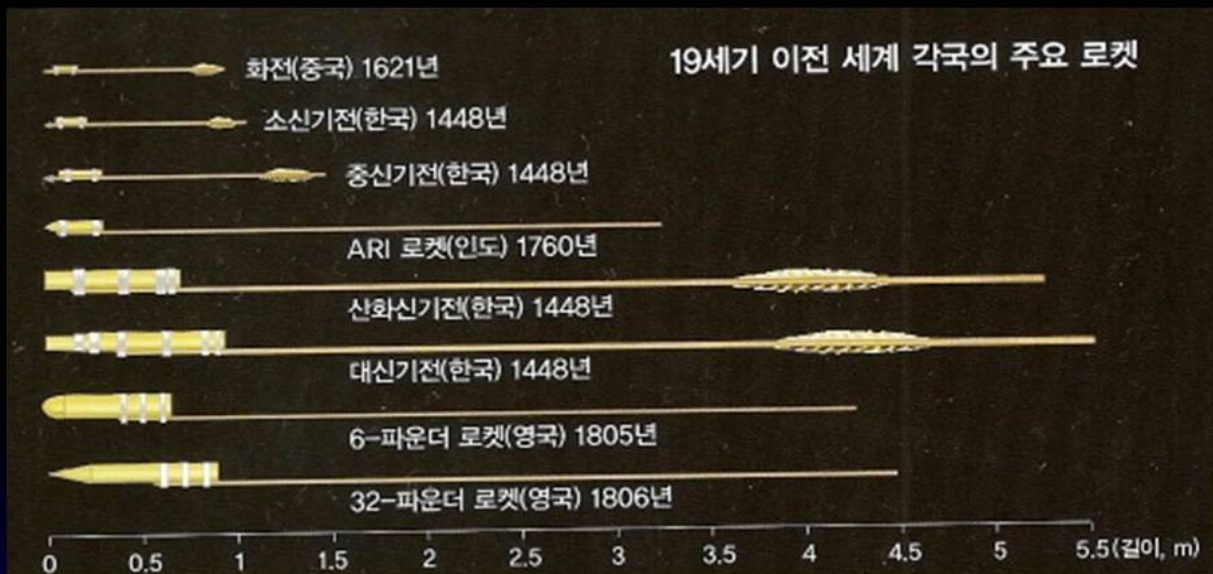
이미지 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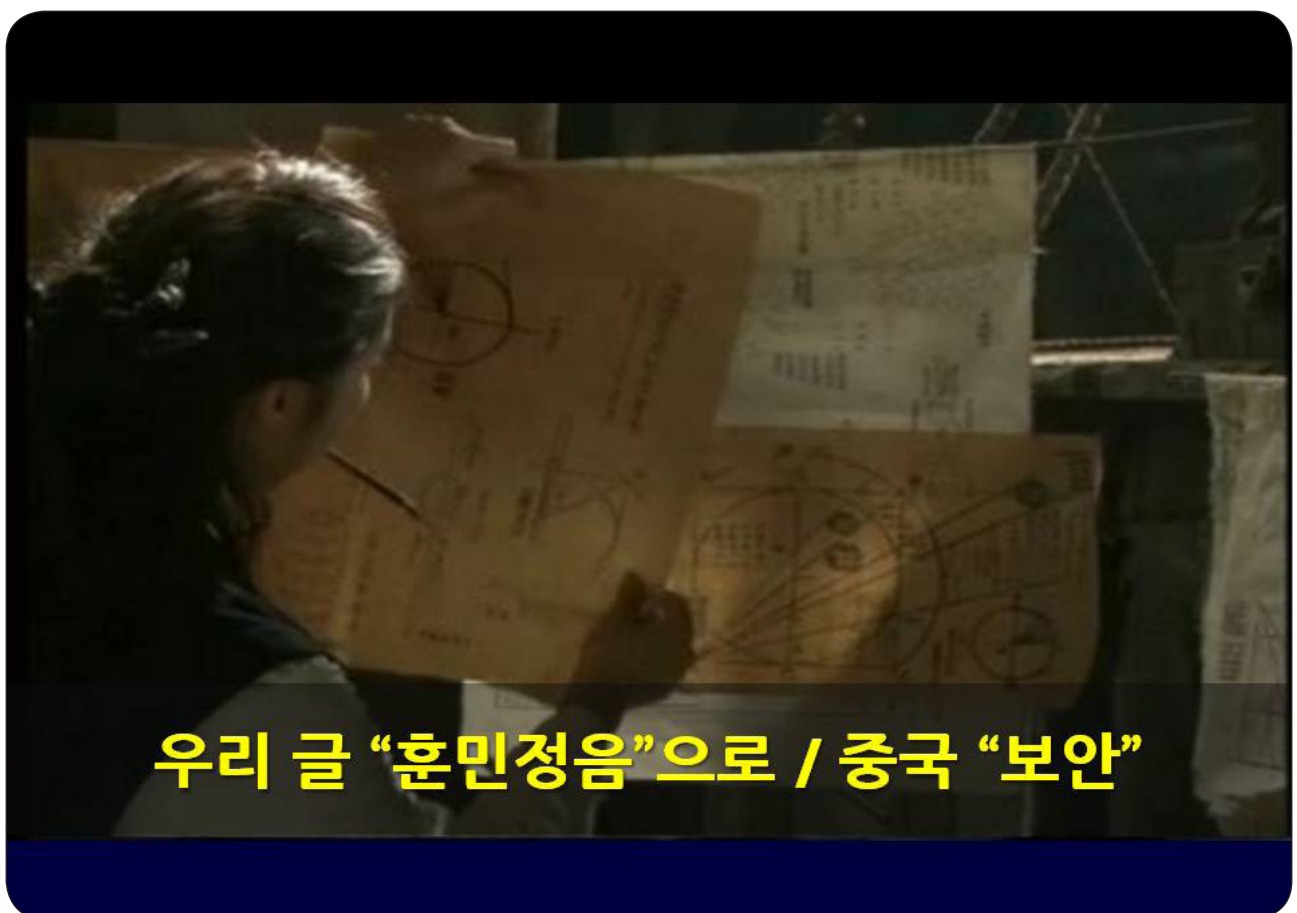
당시의 중국 화포 2) 화룡출수



신화비마와 유사한 형식의 화룡출수(火龍出水), 해전용으로 개발

세계 최고 기술의 '신기전'





1. 신기전의 의의

2. 영화화 과정

3. 빼앗기면 안 되는 우리 고유콘텐츠

배역과 주요 캐스팅



세종대왕 = 무조건, 안성기



신기전 '기술재현' '고증'의 허와 실



신기전 '기술재현' '고증'의 허와 실



신기전 '기술재현' '고증'의 허와 실



신기전 에피소드 - 폭탄



신기전 에피소드 - 폭탄



신기전 에피소드 - 폭탄



신기전 / 2007년 CG의 한계





1. 신기전의 의의

2. 영화화 과정

3. 빼앗기면 안 되는 우리 고유콘텐츠

국립중앙박물관 '중신기전' 기증



우리 콘텐츠 : 미술 / 공예 부문

미술/공예 총 18개



숨쉬는 갈색 도자기
용기의 이야기 창작
소재 개발



한국불교 목공예의
정수 수미단



전통 일간과 월제연
장 사용의 디지털 콘
텐츠 개발



백제금동대향로



경기도자문화원형

우리 콘텐츠 : 미술 / 공예 부문

미술/공예 총 18개



한국대표이미지 국보
하회탈



산사의 소리



한국고서의 표지문양



한국전통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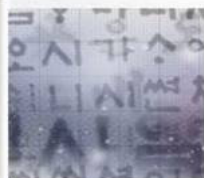
한국의 암각화

우리 콘텐츠 : 미술 / 공예 부문

미술/공예 총 18개



디지털 한국석탑



한국대표 서예폰트



궁중문양



길상(吉祥) 이미지



자수문양

우리 콘텐츠 : 과학 기술 / 의학

과학기술/의학 총 7개



고려시대 `주화` 로
켓과 화약무기의 디
지탈화



한국의 24절기



한국의 도량형



한의학 및 한국고유
의 한약재



조선 궁중 과학기술
관- 천문

우리 콘텐츠 : 의례 / 놀이 / 연회

의례/놀이/연회 총 13개



유랑예인집단 남사당



죽음의 전통의례와
상징세계



조선왕실 관혼상제



고인돌 콘텐츠



한국의 말, 탈춤



이 승 렬

－ 現 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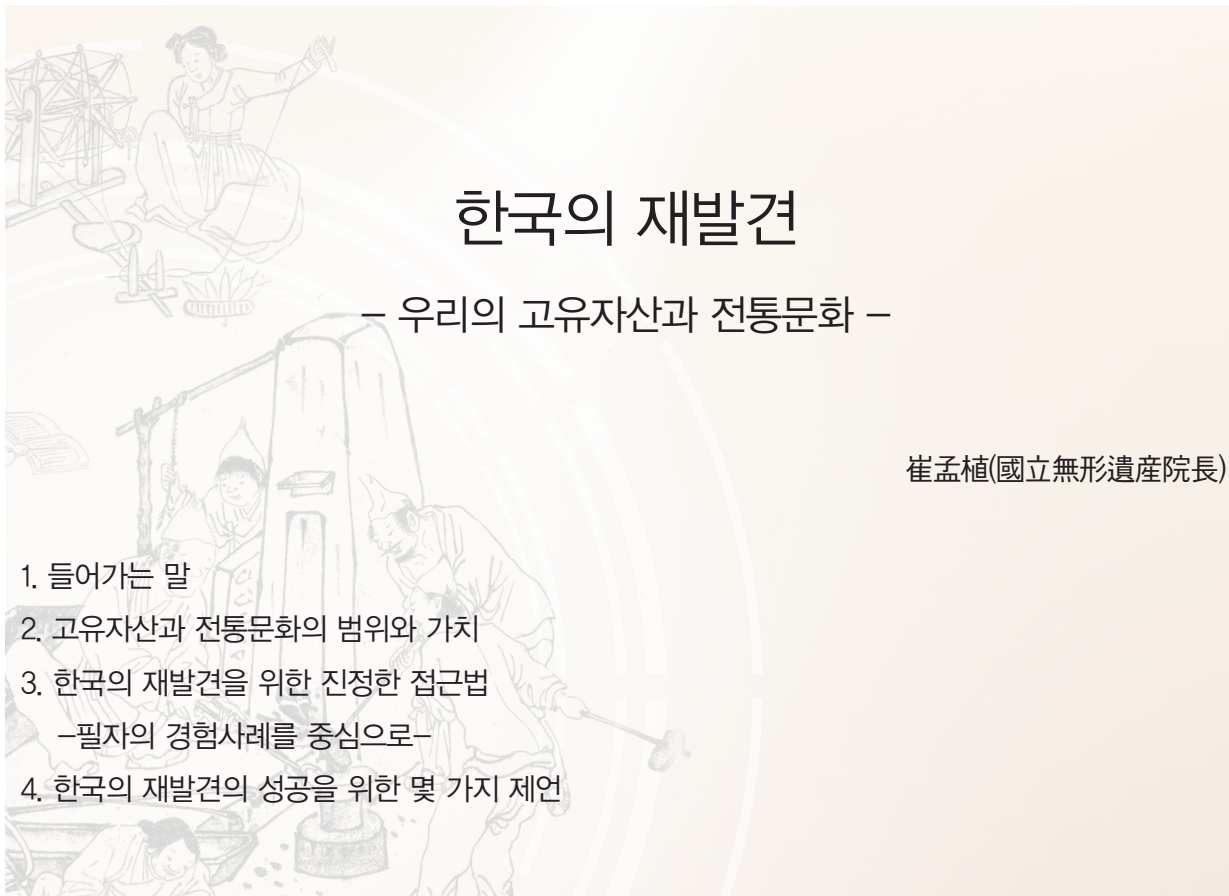
경력

- | | |
|------|-----------------|
| 1998 | 영화 '약속' 제작/연출부 |
| 2004 | 영화 '와일드카드' 프로듀서 |
| 2008 | 영화 '신기전' 프로듀서 |

발제강연

과학기술과 고유 문화 자산의 만남을 통한 ‘新블루오션’ 창출 방안





한국의 재발견

— 우리의 고유자산과 전통문화 —

崔孟植(國立無形遺産院長)

1. 들어가는 말
2. 고유자산과 전통문화의 범위와 가치
3. 한국의 재발견을 위한 진정한 접근법
—필자의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4. 한국의 재발견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 들어가는 말

요즈음은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는 시기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을 언급한지도 10~20여년을 훌쩍 뛰어 넘어 이러한 표현도 이제는 너무 식상한 표현이 되고 만만한 느낌입니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급변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의 내면적인 기류가 급현하는 세태와 비례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를 감싸고 있는 태양계나 이를 또 감싸고 있는 더 큰 은하계의 변화에 따른 동반자적인 변화의 한 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하계와 그 안의 태양계, 또 그 안에 속하여 그 변화에 부지불식간에 따르거나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지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천체는 작은 지구라 일컫는 이른바 인간인 우리가 바로 소우주라고 불려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의 변화와 성숙은 지구와 지구에 거주하는 우리 인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근대화가 시작된 18~19세기 이후 정신적인 성장에 앞서서 물질문명과 이기적인 측면에 좀 더 힘써왔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이후 물질적으로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빠르게 앞서가는 것만을 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만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고와 행위는 이기적이고, 탐내며, 빼앗고 군림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적어도 더욱 폐쇄적인 측면으로

기우러져 왔던 지구인의 힘 있는 국가나 세력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인 도약은 본의 아니게 옳은 명분으로 받아들이고 생산하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반인간적인 제품의 생산과 이용에 많은 물질적인 소비와 정신적인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작게는 개인과 기업이 물질적인 성장을 기하지 않으면 곧 처지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적, 경제적으로 주관을 잃게 되면 주변에 휩쓸려 그 존립마저 점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시반본(原始反本)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원래 우리의 모습과 순수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성장과 성숙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당히 멀리 온 느낌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편리함속에서도 적지 않은 부분을 잃기도 했습니다. 특히 환경과 급격한 기후의 변화는 방치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도 우리의 명맥을 이어져 온 인간의 삶과 그 흔적인 이른바 전통문화라 불리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옛 그대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사회와 경제,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흔적들도 조금씩은 변해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해 왔기 때문에 그와 적응을 하면서 존재하려면 시대에 따라 삶의 모습 모두가 옛 모습 그대로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과 함께 내려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통틀어 저는 문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문화유산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크게 형태가 있고 볼 수 있으면서 만질 수 있는 것은 유형문화(유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무형문화(유산)라고 일단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가치로 환산하여 표현하면 문화재 또 문화 자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대 서구의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우리는 생각과 대상을 서구의 모양과 형식, 내용으로 많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그 내용과 생각도 대부분 여기서 완전하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어찌 보면 벗어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한 삶과 문화의 동반자로서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크게 되돌아보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는 “한국 재발견”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새롭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시 보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수천 년 전부터 함께 하면서도 그 존재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새로 보고, 느끼며, 다시 인식을 시작하여,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유의 자산(유산)과 문화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깝고 우리의 삶을 빛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 고유자산과 전통문화의 범위와 가치

우리의 고유자산의 범위는 너무나 넓고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고유자산과 전통

문화는 넓게 해석하면 서로 공유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고유자산은 크게 보면 자연문화 즉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시대마다 조형된 모든 시설물과 제반 삶의 생활에서 생성된 것들은 전통문화의 한 범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능하면 오늘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오는 것, 앞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가능성을 둘 수 있는 범위내로 축소하여 터치하는 정도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여기서의 전통문화는 위의 우리의 오랜 삶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기술, 예능, 소리(넓은 의미의 언어까지도 포함하는 경향), 생활습관이나 관습(衣,食,住), 전통지식, 의례 등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할 이러한 것들은 숨결을 함께하고 존재하는 것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되어왔던 것들로만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거듭된 산업혁명을 통하여 국가마다 잘살고 앞서가는 경쟁은, 그 재료나 소재에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찾아내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유자산과 전통문화는 우리 생활과 너무나 당연히 근접해있었고 우리 생활자체여서 이를 통한 새로운 재가치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일상생활속의 한 과정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삶이 더 잘살고, 더 오래살고, 더 건강하며 더 값지며 더 의미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학의 발달과 수많은 실험을 해오면서 이러한 삶을 위한 제반 조건이 바로 우리의 고유자산과 전통문화 안에 그대로 녹아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 고유의 것들을 조금씩 개발과 발전을 더해가는 과정이 바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음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새롭게 찾아내고 관리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이른바 융합과 협업을 통하여 보다 훌륭한 체제와 방법이 충분히 모색되고 실천될 수 있을 때 도약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산업의 일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관리체제와 브랜드화하는 작업, 홍보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이고도 유연한 자세로 신속하게 대처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3. 한국의 재발견을 위한 진정한 접근법

-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이장에서는 여러 현장과 실제 과제를 시행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거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실제 경험한 사례를 통하여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하에서 정리해 보았다.

가. 백제 고분출토 직물

1996년 부여 능산리 백제 석실분에서는 백제의 관리 부부가 처녀분으로 발굴되었다. 여기서는 은제 관식과 허리장식뿐만 아니라 부부의 인골이 원위치에서 그대로 출토되었다. 특히 冠飾과 함께 관식을 꼽을 수 있는 모자의 골격인 철제품에 최소 17겹 이상의 직물이 부착된 채 발굴된 바 있었다. 이 직물은 비단(絹)과 삼베(麻布) 혹은 면화(紵布) 등 3종 이상으로 보이는 직물들이 여러 겹으로 반복하여 철제 골격을 감싼 채 부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당시의 직물들은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종류와 올의 짜는 방법까지 연구되어 발굴보고서와 연구내용에서 소개되었다. 이러한 포의 올이나 특히 비단류는 백제에서 제작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상품화 할 경우 씨줄과 날줄의 일정한 굵기와 일정한 범위에서 올의 수량을 그대로 연구하여 재현한다면 백제의 상품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당시의 실 제품이 그대로 발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역사적으로 백제라는 선진국의 상징성 있는 상품가치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백제의 직물류는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과학 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에 따라 올의 굵기와 개수, 직물을 짜는 방법 등을 그림으로 조사 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구된 바 있었다.

나. 좋은 땅기운을 받을 수 있는 터로 건강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개발 -경주 월성과 황룡사지 터 외-

우리는 예부터 집을 지을 때, 아무 곳이나 짓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생활하면서 잠을 자면서 충분한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한 기운을 받고 다음날 또 활동할 수 있는 기운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옳게 많이 배운 이들일수록 후손의 발전과 국가적인 인물을 배출하기 위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배려를 했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다. 인결은 지령에서 나온다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경주 월성은 수많은 우려와 기대속에서 2014년 12월부터 시굴을 거쳐, 발굴로 진입하였다. 경주 월성은 경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유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유적에 속하고, 주변에 있는 황룡사지, 분황사지 등도 그 대표적인 유적이자 우리의 중요한 고유자산이다.¹⁾ 땅기운은 흔히 地氣 또는 生氣로 불리우고 그 대표적인 기운의 색깔 중의 하나인 붉은스레한 기운이 서리기 때문에 중국의 入地眼全書(宋 靜道和尚 편저)에서는 紫氣라고도 한다.

1) 경주월성과 황룡사지 및 분황사지의 사진과 도면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제공받았다. 또한 이들은 모두 崔孟植, 2015, 『乘生氣의 觀點에서 본 新羅 主要遺蹟』, 『馬韓 百濟文化』, 제25집,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에 실린 사진을 재사용하였다.

이 지기는 근원을 찾아 쫓아가보면 시원지에서 발원하여 기운이 일정한 길을 따라 짧게는 수백 수킬로미터 이내에서부터 길게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까지 굴곡과 기복을 거쳐 주변의 지세의 균형이 맞는 곳에 이르면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를 흔히 結穴, 즉 혈이 맺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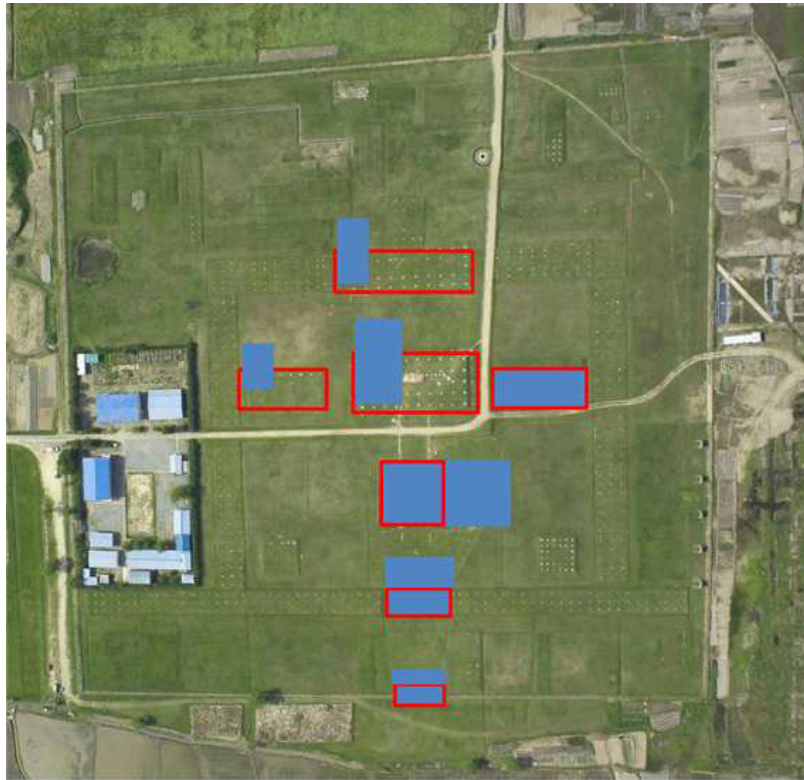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관아, 첨성대 地氣범위

이는 땅기운이 서리거나 뭉치다 또는 융결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기가 이동하는 길은 이 분야에서는 용맥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표현하면 脈線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선은 단독으로는 다닐 수 없다. 기운이 흩어져 일정한 통로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기가 가는 길은 반드시 기운의 양쪽에 水氣라는 물기운이 함께 보호를 해야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이 지기를 품은 맥선은 좌우와 앞뒤 등의 균형이 맞아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양쪽의 수기는 점차 좁혀져 습수하게 된다. 이 흡수하는 곳의 안쪽에 기운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옛날부터 좋은 터로 인식되어 富, 官을 생산하는 상징으로 흔히 말해져왔다. 또한 이 기운이 가는 길은 맥선이라 불리고 있어 기운이 흐르는 일정한 너비가 정해져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기운을 느끼거나 보는 이치를 후세에 남기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월성은 이러한 유적 중, 대표적인 곳이다. 지금 동문, 북문, 서문이라고 불리는 문지는 일정한 너비의 용맥(맥선)이 서로 다른 곳에서부터 흘러와서 월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문지는 모두 이 맥선이 흘러들어온 곳에 마련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월성의 남쪽에는 南川(汶川)에서부터 접하여 횡으로 좁고 길게 월성벽을 관통하여 난 暗門이 있는데, 역시 경주 남산으로부터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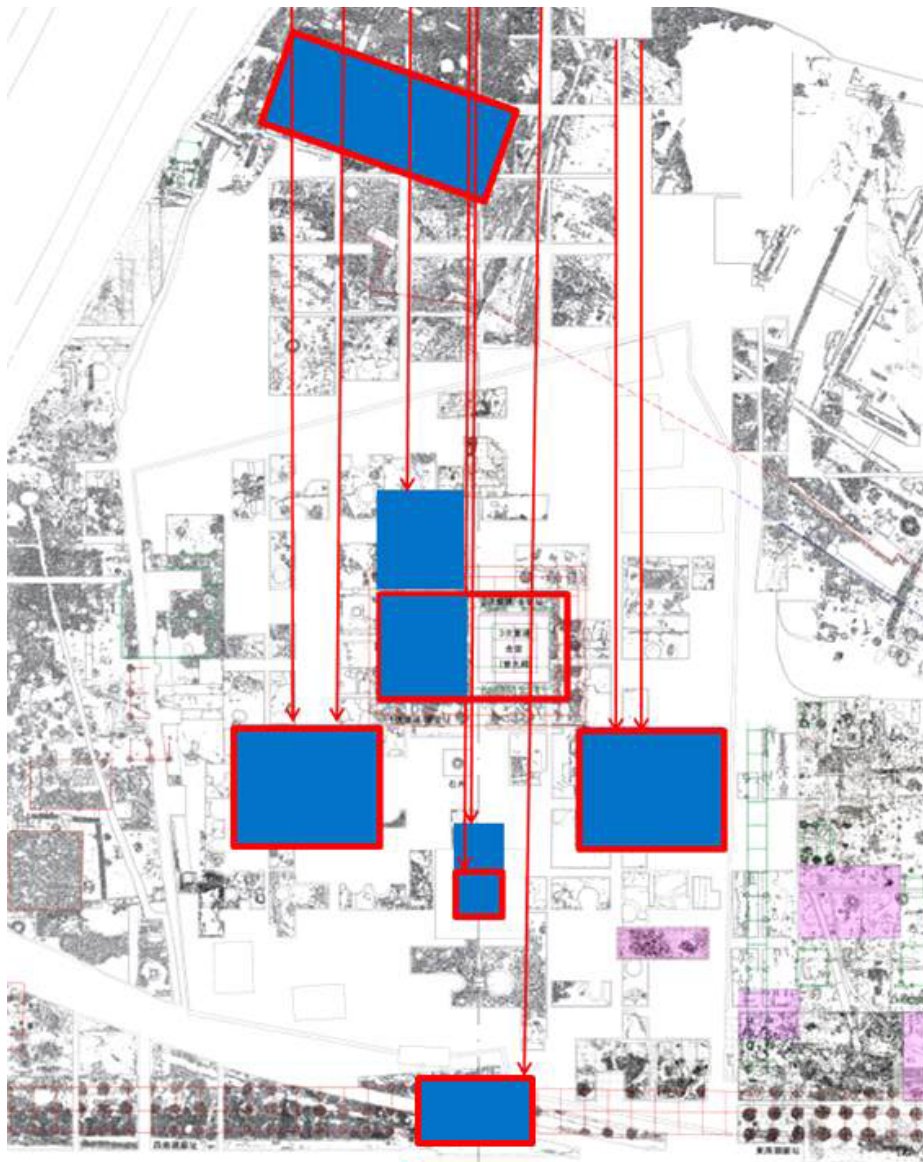


황룡사지 초기건물과 地氣범위

맥이 흘러와서 남천을 관통하여 남성벽을 통하여 월성안의 남쪽 켠에 좋은 양택터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 성벽을 가장 짧은 거리에서 관통하지 않고 횡으로 좁고 길게 기운이 흐르는 맥선을 따라 길을 내고 있다는 점은 삼국시대 신라인들이 이러한 지기와 용맥의 진실을 모두 인지하고 이를 충분히 적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기가 맺힌 곳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흔히 땅기운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 이 분야에서 흔히 전해지거나 관련된 책자의 내용을 모두 적기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기운을 받는 곳에서 쉬거나 잠을 자면, 우선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 요즘에는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과 면역력 약화, 우울증을 앓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학계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기가 머무르는 곳은 자고나면 그렇지 않는 곳에 비하여 기운충전을 받을 수 있어 다음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곳에 비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좋은 터를 이용한 관광 코스와 상품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山寺는 좋은 명산과 이에 따른 수목의 이점, 옛 건물이나 탑, 기타 유적과 유물을 보고 느끼기 위하여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곳 중에는 지기의 범위에 맞추어 한 뼘의 오차도 어긋나지



분황사 초창건물과 地氣범위

않는 지점에 건물을 지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있는 곳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봉정사의 극락전, 수덕사의 대웅전,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조사당 등은 건물 외측기둥의 벽선에서 조금도 오차 없이 건물을 지은 대표적인 유적이다. 해인사의 장경전이나 조선시대의 종묘 역시 이러한 좋은 지기 범위내에 건립한 대표적인 건물이다.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나, 일반인을 누구에게나 출입시킬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이다.

지기가 머무른 곳을 개발 상품화하거나 이러한 곳을 개발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현지 사정에 맞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 전통공예와 현대 디자인과의 만남

전통공예는 장인들이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살려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재료의 한계와 구할 수 없는 재료, 좀 더 편리한 재료에서 그 한계성에 접할 때는 시대에 따른 변통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은 생활의 쓰임에서 사용되었다가 현대에 와서는 그 쓰임이 거의 단절된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당시 실용과 예술품으로서 겸한 공예품도 있다.

장인들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한정적인 작업공장과 일의 공정내에서 생각과 일상활동에 따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생활을 수십 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변화보다는 옛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변화하는 것을 불편하거나 옳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품으로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옛날 방식 뿐 만아니라 모양을 옛 모습 그대로에서 그 가치를 두고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의 현대인들에게는 좀 낯설어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생각과 행위에서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상품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는 상품으로서 가치를 매기기가 쉽지 않다.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무형유산원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공예가와 현대 디자이너와의 만남을 전통적인 기법과 그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더한 작품의 제작을 시도해오고 있다. 공예가와 현대 디자이너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옛 작품에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여 덧붙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바탕은 그대로 두면서도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처음에는 생각의 소통과 공유가 어려워 의견충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충분한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종목에 따라 수년 간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 긍정적인 반응과 실제 이를 반영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진행형상태이다.

라. 전통의학에의 경험과 응용사례

사례1. 엄친의 좌골신경통 사례

1993년도에 필자는 부여로 발령이 났다. 아마도 3월 중순에 발령이 났는데, 4~5월 쯤 되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엄친께서 병원을 4개월 동안 다니셨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이제는 앉기도 어렵고 걸음을 걷기조차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병인지 물었더니, 좌골신경통이라는 것이었다. 벌써 큰 양방 병원과 한방병원을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차도는 고사하고 점차 심해져서 걸음마저 힘들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필자는 다른 연고가 있어 우리 전통의약에 깊은 신뢰를 가진 사연이 있었던 지라 관련 책자를 항상 사무실과 집에 비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뒤져보고 했던 때였다.

3일간의 휴가를 내어, 전통 의약책에 의거한 좌골신경통에 신호하다는 오래 묵은 닭, 모과, 우슬, 묵

은 무우씨를 적힌 화재의 양만큼 구하여 시골 사택으로 갔다. 마침 이 화재를 소개한 신약에서는 수돗물보다는 깨끗한 우물물이 더 좋고, 이 우물물보다는 자정수의 약수가 더 좋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시골의 우물물을 큰 무쇠 솥에 재료와 함께 넣고 만 24시간 불을 지피웠다.

24시간을 달여 건더기는 짜서 버리고, 약을 담아 보관하면서 하루에 3차례씩 식후에 복용하시도록 하고 올라왔다. 열흘 쯤 지났는데, 엄친께서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살이 조금씩 올라왔기도 쉽고 이제는 걸음도 걸을만하여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번 정도 약을 더 달여 해드렸는데, 2010년도에 작고하실 때 까지 한반도 이로 인한 재발이 없었고, 돌아가실 때는 연세로 인한 기력이 다하시면서 자연 작고하셨다.

사례2. 모친의 고혈압 사례

같은 해인(1993)여름 어느 날 시골집에서 전화 한통이 날아왔다. 모친께서 밭에서 일하시다가 손이 심하게 저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고혈압이라는 것이었다. 모친께서는 필자를 믿는지라 병원에서 권하는 양약을 드시지 않고 필자에게 전화부터 하신 것이었다. 모친의 혈액형에 맞추어 신약에 있는 고혈압 화제를 적어 한약방에서 5첩을 우선 지어 시골로 내려갔다. 5~6첩 정도만을 지은 것은 모친께서 AB형이었기 때문에 녹용을 넣는데 녹용의 값이 만만하지 않아 우선 달여 드신 후 그 경과에 따라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또 신약에서 고혈압 약을 지어 먹은 후, 혈압이 내리고 증상이 나았는데도 계속 약을 복용하면 좋지 않는 현상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시골에서 한 첩씩 달여 드시게 했는데, 5첩을 드시자 거짓말처럼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고 실제 증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모친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그 증상과 혈압은 병원에서 검진에 의한 결과였다. 필자는 안심하고 완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잊고 지냈다.

8년이 지난 2001년도 8월 어느 날 시골집에서 전화를 했는데, 모친께서 더운 여름에 밭을 매시다가 팔뚝이 심하게 저려 집에 들어오셨는데 증상이 내내 좋지 않으시고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관련 처방의 출처인 신약 중, 고혈압 내용을 모두 읽어보니 8년 전 처음 증상이 발생했을 때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AB형은 이 화제를 사용하되 나아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재(40첩) 분량을 복용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수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 화제에 대한 중심내용만 읽고,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던 것이 화를 부른 것이었다. 이번에는 화제에 나온 처방대로 두 재를 구해가지고 한 번에 달여 좀 더 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약을 모두 달여 한재, 두 재를 복용하자 혈압은 많이 내려왔지만, 120 대로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치가 130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화제 한재를 다시 구하여 같은 방법으로 달여 모두 복용했지만 혈압의 높은 수치가 더 이상은 내려오지 않았다. 물론 혈압수치 이외에는 다른 증상은 전혀 없어졌지만, 병원에서는 상태로 보아 혈압 약을 하루에 반 알씩만 복용하라고 처방을 내 주었다. 이 복용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3. 미륵사지 현장 작업반장의 갑상선 사례

이 증상의 치료 사례는 사무실 직원과 현장 반장의 두 사례가 있는데, 현장 반장의 한 사례만 소개하기로 한다. 1988년 필자가 미륵사지 발굴현장의 책임자로 있다가, 7월 경주박물관으로 발령이 난후 다음해에 미륵사지 여직원의 결혼식에 참여 차 이리시(지금의 익산시)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당시 미륵사지 현장 반장을 맡고 있었던 분을 뵈게 되었는데 너무나 수척하고 어렵게 보였다. 어디 편찮으신지를 물었더니 필자가 현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상선을 앓게 되었는데, 양약과 한약을 모두 복용해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포기한 상태라고 하였다.

89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92년도 3월에 부여연구소장에 임명되어 미륵사지 발굴을 다시 총괄하게 되었다. 현장에 들린 첫날 반장께 갑상선에 대한 그동안의 양 한약이 모두 효험이 없으니 한 가지 다른 처방이라도 어떤가 의사를 물었더니 바로 승낙하였다.

필자 역시 약리학이나 병리학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지만, 신약을 평소 즐겨 읽으면서 신약의 내용은 단순한 지식의 모음이 아닌 정신과 약리 병리학을 동양사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집대성한 총체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신약에서는 증상에 따라 갑상선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어 그에 대응하는 화제를 소개한 것이다. 필자는 미륵사지의 발굴현장 반장의 여러 증상을 허증으로 판별하고, 그에 맞는 화제를 적어 함께 이리시에 있는 모 한약국으로 갔다. 화제대로 오직 1첩만을 구입한 후, 신약에 기록된 대로 달이는 방법과 복용시기, 복용 후 한 두 가지의 대처방법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다.

필자도 그 결과가 의아할 만큼 신기했다. 지금도 생각나면 그냥 그 체질과 약과 처방자와 복용자의 믿음의 결과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었다. 수 년 동안 그토록 고생하고 양 한방을 다니면서 수없는 약을 복용했지만 낫지 않았던 병이 어떻게 한 첩에 쉽게 나을 수 있었을까.

4. 한국의 재발견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처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의 발제 강연의 제언을 받는 순간 적잖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고, 둘째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나의 현장경험만으로 이를 충분한 소화가 가능할까하는 고민이 스쳤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동안 유선상의 설명과 보내주신 미래융합포럼의 취지에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포럼의 개최 취지내용에서 고유자산과 전통문화의 가치부여, 거기에서 찾아내는 새로운 인식, 관련 부처와 각 전문 기관간의 협업과, 필요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서로 간의 융복합연구 사업의 전개는 오늘 우리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근간 중의 하나라는 약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적지 않은 현장 조사와 발굴조사 및 이곳에서 확인된 유적과 유물의 조

사 연구는 과학적인 체계에서 만이 확인하고 연구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왔음을 내 뇌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전통문화는 무엇인가. 수많은 글과 말이 난무해왔고, 중요 과제로서 다루면서 이를 보전 계승 및 진흥이라는 취지하에 국민에 다가가는 정책과 이를 진작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연과 전시 등의 시행과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당 전문가와 보유자, 이수자, 전수조교, 이를 듣고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목말라하고 있고, 그러한 실태도 널리 인식되지 못한 부분도 많다.

우리의 고유자산은 수많은 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아직 선상에 오르지 못한 부연하자면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자산도 적지 않게 존재할 수 있다. 전통문화는 유형적인 자산에 비하여 특히 그러한 여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여지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주와 자연적인 소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재를 찾아내고 조사 연구를 통하여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미 우리 생활에 접목시키거나 진행 중인 연구활동인 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유 무형적인 고유자산과 전통문화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복합적인 조사와 연구에서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는 어느 한 부서나 기관, 몇몇 연구자를 만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다.

- 국가차원에서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
- (간섭이 아닌 실제 효과적인 융복합과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서)와,
- 직간접적으로 이를 연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실 연구기관,
- 이들을 접맥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곳,
- 재료와 소재를 꾸준히 찾아내고 가능성을 조사 진단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곳,
- 정책적인 네트워크를 실제로 실현해줄 수 있는 기관,
- 최종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목적인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성과 여부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곳,
- 충분한 예산을 지원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이 필요하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분리시키거나 또는 통합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본격적인 과제를 수행해가면서 점차 가장 효율적인 경영과 재정관리의 적정성을 찾아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연구기관 중에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전통과 자연의 천연물질을 연구하고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고 조금씩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고유자산과 전통문화에 관련된 부처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발굴하며, 새로운 소재를 찾는 작업을 진작시키고 부서간 협업과 융복합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 맹 식

- 現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 前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 前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실장
- 前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실장
- 前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실장
- 前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소장
- 前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및 사적과 과장
- 前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토론

한국 재발견

무엇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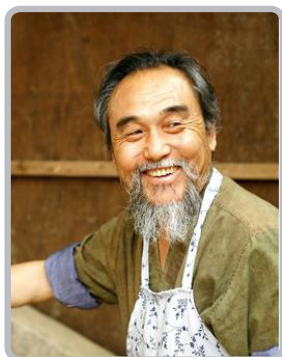


김 두 희

- 現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
- 前 동아일보 과학동아 편집장
- 前 경향신문 출판국 기자

수상실적

2010	제5회 해동상 공학기술문화확산 부문
2010	동아대상
2008	제26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특별상
2008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특별상
2004	과학기술훈장 진보장[과학기술부
2003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대상
1997	31회 한국잡지언론상 편집부문



김 세 용

－ 現 대한민국명장 제349호

저서

1985 | ‘전통기법을재현한 도자기공예’

수상경력

1997 | 문체부 도자기공모전 금상

전시경력

- 2015 | 미안마초청 한국도예협회회원전
- 2015 | 아름다운우리도자기 공모전 심사위원
- 2014 | 대한민국명장 작품박람회(코엑스)
- 2013 | 명지대동문전“2013도자기쓰임전”(한가람미술관)
- 2006 | 제1회 개인전“흙에서 빛으로”(세계도자센터)



김 호 경

- 現 (주)풍림무악 부사장
- 現 풍림무악 제약사업 CEO
- 現 한국생약학회 부회장
- 前 IVS 컨설팅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이 명 재

- 現 (주)지오그린21 대표이사
- 現 (유)케이브이오씨 대표
- 現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전문위원
- 現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 기술협력
컨설팅 자문위원
- 現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문위원
- 現 대한지질학회 전문위원
- 前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감사

수상경력

- | | |
|------|----------------|
| 2014 | 국토교통부장관상 |
| 2011 | 환경부장관상 |
| 2011 | 대한자원환경학회 탐사기술상 |



최 옥 자

- 現 대한민국명장(섬유가공) 제512호
- 現 전통천연발효염색 연구소 소장
- 現 (사)전통예절진흥회 이사장
- 前 (주) 네츄럴 바이오 대표이사

수상실적

- 1997년 10월 8일 - 보건복지부 표창 “여성복지 증진”
- 2005년 11월 8일 - 노동부 장관표창 “우수기능개발”
- 2006년 12월 8일 - 대구경북여성과학 기술인회장 표창 “신진여성과학기술”

전시경력

- 국내전시 총120회
- 국외 전시 총20회
- 2010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빌딩 하트 갤러리 “전통천연발효염색작품”전시
- 2009년 8월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전통천연발효염색작품”전시
- 2009년 3월 중국 청화대학교미술대학원 전시실 “전통천연발효염색작품”전시
- 2008년 10월 오사카 한국 문화원 “전통천연발효염색작품”전시
- 2007년 6월 영국 런던 아트스페이스갤러리 한국공예품전시 “전통발효염색작품”전시
- 2007년 3월 뉴저지주 동화문화원 “전통천연발효작품”전시
- 2007년 2월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 뉴욕섬유전시회 “전통발효염색” 전시
- 2006년 9월 독일 뒤셀도르프 유럽 수출박람회 참가 기능성제품 전시
- 2003년 11월 모스크바 아시아 박물관 “천년의 빛깔” 작품전시
- 2003년 9월 뉴욕 코리아 갤러리 “천년의 빛깔”작품 전시
- 2003년 8월 일본 대마도 종합문화회관 “ 천연염색” 작품 전시
- 2001년 6월 동경 길영 갤러리 “전통발효 쪽염색 수공예 조각보”전시

MEMO